

통일 칼럼

김정은의 위기의식

북한 조용원은 계속해서 실세 2인자의 길을 걸었다. 1957년생인 조용원은 김일성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김일성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동당의 핵심인 조직지도부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 장면으로 조용원은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 뒤쪽 박태성 옆에 앉았다. 2005년엔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됐는데 2010년 9월, 김정은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추대되며 후계자로 공인됐던 3차 당대표자회에서 박태성과 함께 김정은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지금은 총리가 된 박태성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부터 수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월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중앙위 조직비서가 됐고 같은 해 6월엔 조직지도부장도 겸임하게 된다. 북한에서 조직지도부는 '당 속의 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시된



정복규
논설위원

다. 당 조직은 물론 간부들의 인사권과 검열권도 갖는 곳으로 김정일 집권기에는 본인이 직접 틀어쥐었을 만큼 요직이다.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조용원은 그 후 5년 가까이 자리를 유지하며 핵심 실세로 군림한다. 오랜 시간 '넘버 2'로 군림한 조용원은 김 위원장 앞에서 한없이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자주 보도된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 부정이나 권력 남용 같은 속칭의 발미가 될 만한 일을 잘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반장 같은 역할도 한다. 비난의 대상이 됐던 김두일 당시 경제부장은 이후 바로 해임됐다. 조용원을 두고 '김정은의 복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오랜 세월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은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데다 누구보다 김 위원장의 심중을 잘 캐치하고 헤아리는 인물이다. 조용원이 김 위원장이 입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김 위원장의 현지시찰에 가장 많이 동행하며 한때 "그림자"라는 별칭까지 얻

었던 조용원은 김 위원장의 시찰 전에 미리 현장의 실태를 살피고 문제점도 파악한다. 조용원은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됐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일인 최룡해가 그랬듯이 실권은 별로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조용원의 2선 후퇴설이 돌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김 위원장은 조용원을 조직 비서이자 조직지도부장으로 복귀시켰다.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였던 김재룡 조직지도부장은 일괄 해임됐다.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 소장의 부정부패가 드러났고 김재룡에게 지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김재룡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불만 속에 김 위원장은 가장 믿음직한 심복을 다시 불러야 했다. 조용원 조직지도부 체제로 회귀한 건 그만큼 김 위원장이 믿음직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현실적 고려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고문

만95세 초고령자에 대한 법의 자비·선처 호소하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오직 진리와 공의,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를 바라보며 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최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조사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목회자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에 법과 사회를 향해 간곡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가장 먼저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이 총회장의 연세다. 그는 올해 만 95세라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초고령의 어르신이다. 가뜩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 극심한 척추 질환까지 앓고 있는 노구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연세에 좁고 차디찬 수용 시설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신 구속을 넘어 생명 자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법과 인권 기준을 둘러보더라도 초고령자에 대한 구금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는 법률에 따라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살인이나 실질적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중범죄 위협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출 제한 등의 대안적 조치를 적용한다.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UN의 '만델라 규칙(Mandela Rules)' 역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구금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고령 수감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인도주의적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가해지는 구속 수용은 실로 안타깝고 과중한 조치 가 아닐 수 없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총회장은



전광섭
대한예수교
장로교 김진리
생명교회 담임장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모든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해 왔다. 주저가 명확하고 평생을 공적인 삶을 살아온 고령의 인물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지극히 희박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인도주의적 배려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의 한 세기에 가까운 삶은 국가와 이웃, 그리고 인류를 위한 헌신의 연속이었다. 청년 시절에는

동독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냈다. 전후에는 그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봉사과 나눔에 앞장섰으며, 평화라는 가장 숭고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평생을 전 세계 평화와 봉사, 신앙인의 삶으로 점철해 온 인물이 이제 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를 피할 리 만무하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니라." 엄격한 법 집행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이지만, 그 속에 인간애에 대한 공화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법은 진정한 권위를 얻고 사회를 치료하는 숭고한 힘을 갖게 된다. 평생을 국가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 온 만 95세 초고령의 이만희 총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깊은 혜안과 관대한 선처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사설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

전북도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6년도 'MMCA 지역동행' 전시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 Picasso Ceramics: A Summer in Vallauris'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진희컬렉션 가운데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도예 작품 90여 점과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이는 자리다. 회화와 판화, 조각을 넘나든 피카소의 조형 언어가 도예라는 입체 매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MMCA 지역동행'은 수도권에 집중된 미술관의 전시·교육·다원예술 콘텐츠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이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시는 그중 '국제명작전

순회 및 공동주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진희컬렉션의 피카소 도예를 도내의 관람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20세기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피카소는 1940년대 후반부터 남프랑스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에서 도예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자료실에서는 피카소가 한국에 어떻게 소개되고 받아들여졌는지도 함께 짚는다. 신문 기사와 잡지 비평, 국내 전시 기록 등 주요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 미술계 안에서 피카소가 수용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강연 프로그램은 피카소 도예를 미술사와 현대도자, 한국 수공사와 연결해 전시의 핵심 해석을 심화하는 자리로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국힘 등 정치권에 대한 정규제의 쓴소리

최근 정규제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구대 정치를 청산하고 실용적인 생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혜로운 좌파 중도당이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독재정권에 미련을 갖는 올드 민주당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성년이 되고도 사춘기의 욕구 체계로 몸을 데운다면 '지진'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최근 국회 상황을 겨냥해 "상임위에서 교란지르고 증인을 협박하는 완장의 무대로 이해하고 국회를 다수 집단의 지배 수단으로 삼는 정당이라면 '뉴 대한민국'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최소 수혜자에게 더러운 복지를 제공하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당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 고문은 "국힘과 그 지지자들이 화끈한 쿠데타의 미련 속을 여전히 착오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며 "신군부의 권력 욕구를 구국 결단으로 대리 만족하려는 뉘그러나 과거와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내부의 권력기관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걸·판사,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여전히 은밀한 선들을 로컬 등에 연결하며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며 "하나의 초월적 지배 권력을 추구하는 봉건적 음모 정당이 아닌, 정상적인 생활 정당으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